

## “그녀가 운다”

### — 생태비평으로 읽는 예레미야 12장 —

유연희\*

####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는 인류가 산업사회 이래 영위해온 생활양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반성하게 했다. 한국인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4위이고,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은 세계 1위(연 132.7kg 폐기)이다.<sup>1)</sup> 기후 위기로 인류와 지구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한다. 각 분야는 생태 회복을 키워드 삼아 연구하고 삶의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이 글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생태 관점으로 성서를 읽으려고 한다.

이 글은 ‘지구성서(The Earth Bible)’ 프로젝트의 학자들이 개발한 생태비평을 예레미야 12장에 적용하는 시도이다.<sup>2)</sup>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 후반에 호주 학자들이 시작하여 2000년 어간에 다섯 권의 단행본을 냈다.<sup>3)</sup> 그

\*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yaniyoo@hanmail.net](mailto:yaniyoo@hanmail.net).

1)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순이다. 송경은, “韓 1인 탄소배출량 세계 4위..”, 『매일경제』, 2019. 9. 23.,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9/757523/> (2021. 8. 1.); 고선호, “플라스틱, 미래를 품다”, 『이뉴스투데이』, 2021. 4. 5.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775> (2021. 8. 1.).

2) 지구성서팀이 사용하는 ‘지구’라는 용어는 전체 생태계, 생물망, 자연 영역을 가리키고, 인간은 그 일부이다. 때로 ‘지구’는 흙, 대지, 생물 서식지를 가리킨다. N. C. Habel,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Earth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3;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arth Bible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7.

후 생태비평은 미국성서학회(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SBL)의 생태 해석학(Ecological Hermeneutics) 정규 분과가 되었다. 지구성서 프로젝트는 이전의 연구들이 생태에 관해 좋은 의도로 수행했을지라도 대체로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이었다고 지적한다.<sup>4)</sup> 지구성서 학자들은 처음에 생태 비평을 위한 여섯 가지 해석 원칙을 제시했고, SBL 분과를 통해 세 가지 초점(의심, 동일시, 회복)을 개발하였다(아래 참조).

성서에는 지구공동체의 비-인간 구성원들이 많이 등장한다. 현대 도시인들의 저술이라면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지구구성원들을 비유조차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이 생산양식이었고 산업화 이전의 사회였으니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면서도 성서 화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및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루려는 저술 목적이나 자연과 동물을 사용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이었다. 그럼에도 이 판단을 성서의 모든 본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각 본문을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예레미야 12:11의 “그녀가 운다(‘아블라[אבלה]’)”를 핵심 구절로 삼아 생태비평의 여섯 가지 원칙을 배경에 두고 세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12장을 택한 이유는 예레미야와 주님 외에 다양한 지구공동체 구성원이 등장하므로 생태비평의 초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이다. 본문에는 동물, 식물, 땅, 강, 사람들 등 다양

3)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N. C. Habel and S. Wurst, eds., *The Earth Story in Genesis*, Earth Bible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N. C. Habel and S. Wurst, eds.,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The Earth Bible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Psalms and Prophets*, Earth Bible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Earth Bible 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4) 김도훈은 1970년 이전의 학자들이 성서에 인간중심적 생태 해석을 했고, 그 이후에 샌트마이어를 비롯한 학자들이 그런 경향을 극복했다고 여긴다. 김도훈, “생태학적 성서해석의 시도”, 『장신논단』 19 (2003), 209-233. 지구성서팀의 생태비평은 샌트마이어와 맥커피의 초기 연구를 전제로 한다. 샌트마이어는 성서 해석의 새로운 선택으로서 중심적인 생태 주제들에 초점을 두고 생태 해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 Paul Santmire, *The Travail of Nature: The Ambiguous Ecological Promise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그러나 생태비평은 지구 및 지구공동체를 연구 ‘주제(theme, topic)’로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일시까지 한다. 맥커피는 당시(1996)로서는 최첨단 주장을 했다. 본문에 반영된 성서 화자의 실제 물리적 환경과 이데올로기를 식별해야 하고, 창조가 단순히 인간사의 배경으로 간주되는 것을 넘어서야 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적 성서에 기초한 신학을 의문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G. McAfee, “Ecology and Biblical Studies”, D. Hessel, ed., *Theology for Earth Community: A Field Guide* (Maryknoll: Orbis Books, 1996), 31-44;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33-37에서 재인용. ‘인간중심적’이라는 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생태비평의 세 초점 중 ‘의심’ 부분에 나와 있다.

한 지구구성원이 등장한다. 특히 땅은 ‘땅(‘에레츠[אֶרֶץ])’이라는 단어 외에도 여러 단어(들, 평지, 유산, 포도밭, 뭇, 밭, 광야, 황무지, 이방 땅)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목소리도 내므로 지구구성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레미야 12장을 생태 관점에서 관찰할 때 특이한 것은, 본문의 핵심 부분인 야웨의 시적인 말씀(7-13절; 야웨의 산문 말씀은 14-17절)에서 유다 백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말이 ‘땅’, ‘유산(‘나할라[נַחֲלָה]’, 소유)’, ‘뭇(‘헬카[חֵלְקָה])’, ‘내가 사랑하는 그녀’, ‘매’, ‘포도밭’ 등으로 나오고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인간이 탈중심화된다. 이런 면에서 『성경전서 새번역』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여성형, 7절)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번역하고, ‘나할라(נַחֲלָה)’를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라고 번역하여(12:7, 8, 9)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꾼 것은 번역자들의 인간중심적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sup>5)</sup> 이 글은 땅이 백성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땅 자체이고, 야웨가 소유권과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땅이 단순히 역사의 배경이나 예언 메시지의 도구가 아니라, 역사의 주요 참여자요, 이해당사자라고 볼 것이다.

이 글은 먼저 방법론 및 관점으로 지구성서 생태비평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나서 본문의 내용과 연구사의 주요 논의를 다룰 것이다. 그런 후 생태비평을 본문에 적용할 것이다.

## 2. 방법론과 관점: 생태비평

이 글에 주로 적용할 생태비평 방법론은 노만 하벨(Norman C. Habel)을 중심으로 호주 남부(Adelaide) 신학자 그룹이 수행한 지구성서 프로젝트에서 나왔다. 지구성서팀은 성서학계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생태해석학 연구 그룹인 영국(Univ. of Exeter)의 ‘환경윤리에서 성서의 사용(The Uses of the Bible in Environmental Ethics)’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sup>6)</sup> 이 영국 프로젝트의 대표 학자인 데이비드 호렐(David Horrell)은 ‘지구성서’팀의 연구에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들어 있다고 평가한다. 지구성서팀의 공헌은 이전

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소유를 내던져 … 내 소유가 … 소리를 내므로 … 내 소유가 … 아니냐”라고 하여 사람으로 바꾸어 번역하지 않아 원문에 충실하다.

6) Centre for Biblical Studies, “Uses of the Bible in Environmental Ethics”, <http://humanities.exeter.ac.uk/theology/research/centres/biblicalstudies/past/uses/> (2021. 8. 1.).

연구들이 몇 가지 인기 있는 ‘녹색’ 본문(예를 들면, 창 1장; 6-9장; 사 11:6)을 주로 다룬 것을 넘어서 다양한 성서 본문을 생태적으로 해석하고, 비평적이고 자기 의식적인 해석학 전략을 요하는 생태 해석을 강조한다는 것이다.<sup>7)</sup> 이 외에도 지구성서팀은 에코페미니즘의 전제와 연구 결과를 따른다.<sup>8)</sup>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 Ruether)가 남성학자들이 성서 본문을 대하는 방식은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이래 에코페미니즘 연구가 많이 나왔다.<sup>9)</sup> 성서와 에코페미니즘과 생태비평의 결합은 또 다른 풍성한 연구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구성서팀의 생태비평(ecocriticism, ecological criticism)은 정교하게 절차를 따르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생태비평’이라는 용어는 ‘생태해석학’보다 작은 개념이면서 번갈아 써도 무방할 것이다. 생태비평은 급진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인간 해석자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문 안에서 지구를 주체로 여기고 지구와 연대하며 읽을 것을 요청한다. 지구성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다.<sup>10)</sup>

- 1) 내적 가치의 원칙: 우주, 지구, 모든 구성 요소(components)는 내적 가치를 갖는다.
- 2) 상호연결의 원칙: 지구는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생존에 의존하고 상호연결된 공동체이다.
- 3) 목소리의 원칙: 지구는 축하나 불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이다.
- 4) 목적의 원칙: 우주, 지구, 모든 구성 요소는 역동적 우주 디자인의 일부이고 각자 그 디자인의 목적 속에서 자리를 갖는다.
- 5) 상호 관리직의 원칙: 지구는 균형 있고 다양한 지구공동체로서 책임 있는 관리자들(custodians)이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 6) 저항의 원칙: 지구와 그 구성 요소들은 인간의 손에 고통을 겪지만

7) 참조, D. G. Horrell,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T & T Clark, 2010), 7.

8)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31-37; D. G. Horrell, *Ecological Hermeneutics*, Introduction.

9) R. R. 류터, 『가이아와 하느님: 생태 여성학적 신학』, 전현식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H. Eaton, “Ecofeminist Contributions to an Ecojustice Hermeneutics”,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54-71 참조.

10) N. C. Habel, “Ecological Criticism”, S. L. McKenzie and J. Kaltner, eds.,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46-47;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42-53.

불의에 저항한다.

이 중 3번, ‘목소리의 원칙’과 6번, ‘저항의 원칙’은 지구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다. 비-인간 지구구성원은 본문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재현되어 있으므로 생태비평가는 실재와 경험을 매개하는 깊은 상징 언어를 요한다.<sup>11)</sup> 생태비평의 과제는 본문이 이들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갈등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다.<sup>12)</sup>

지구성서 프로젝트의 생태비평은 2000년대 초반에 SBL의 정규 분과가 되면서 세 가지 초점인 의심(suspicion), 동일시(identification), 회복(retrieval)의 해석학으로 재공식화되었다.<sup>13)</sup> 이 초점에 대해 하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sup>14)</sup>

1) 의심: 의심이란 성서 본문 자체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으로 기록되었고,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다는 해석학적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 것이다. 인간 중심성의 첫째 측면은, 특히 서구의 가정과 조건으로서 인간이 자연의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이며, 위계상 하나님, 인간,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의 순서라는 것이다. 둘째 측면은 자연, 특히 무생물계를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은 권리와 가치를 지닌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위한 무대나 배경으로 여겨진다.

2) 동일시: 동일시란 지구를 경청하기 위해서 독자가 본문 속 지구 존재, 지구 등장인물, 지구 목소리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성서 속 등장인물들과 종종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의 생태적 연관성을 따른다. 생태비평은 생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다른 지구공동체 구성원들과 친족이라는 기존의 생태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이 나오는 본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구와 연대하고 공감하며 읽는다.

3) 회복: 회복이란 지구와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 외의 표상들이 애도나 찬양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11) H. Eaton, “Ecofeminist Contributions to an Ecojustice Hermeneutics”, 66.

12) N. C. Habel, ed.,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2.

13) N. C. Habel,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2-3.

14) N. C. Habel, “Ecological Criticism”, 39-58. 하벨은 이 생태비평의 세 가지 초점을 출애굽의 열 재앙 이야기에 적용한 예를 제시하며, 나일강이 일인칭으로 말하도록 목소리를 주는 것으로 마친다. Ibid., 54. 한국의 학자들도 같은 출애굽기 본문을 생태관점에서 다루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장석경, “열 가지 재앙에 나타난 생명과 생태계”, 『Canon&Culture』 6:2 (2012), 79-108을 보라.

할 때 과거 연구들은 인간중심적인 편견에서 시적 자유, 상징적인 언어, 의인화라고 일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복이라는 초점은 지구와 지구공동체 구성원들이 본문의 관점과 해석사의 관점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저항하고 또는 배제당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읽는다.

이 글은 주로 생태비평의 세 초점을 본문에 적용하는 한편, 이 글이 12장의 핵심 부분이라고 여기는 10-12절을 수사비평으로 분석하며 야웨와 땅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것이고, 땅에 목소리를 주기 위해 생태 미드라쉬를 간단히 시도할 것이다.

### 3. 예레미야 12장에 대한 생태비평

#### 3.1. 예레미야 12장의 내용 및 연구사의 주요 논의

예레미야 12장은 1-29장의 큰 틀 안에 있고, 이 큰 틀의 중심 주제는 깨어진 계약과 유다에 대한 압박한 심판이다.<sup>15)</sup> 예레미야 12장도 이 중심 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의 다른 부분에도 종종 나오는 예언자의 원망과 슬픔, 유다에 대한 심판, 희망의 실마리 등을 포함한다. 예레미야 12장은 전반부에 예레미야의 고백(1-6절), 후반부에 야웨의 말씀(7-17절)이 있다. 아래는 12장의 구조이고, 예레미야와 주님이 언급하는 지구 및 지구 구성원들을 보여준다.

가. 전반부: 예레미야의 고백(12:1-6)

- 예레미야의 말(12:1-4) - 악인들, 속이는 자들, 심기고 열매 맺는 나무, 양, 땅, 거주민들, 식물, 짐승, 새
- 야웨의 대답(12:5-6) - 보병, 평지, 말, 강물, 예레미야의 가족, 친지

나. 후반부: 야웨의 말씀(12:7-17)

- 시에 담긴 야웨의 말씀(12:7-13) - ‘내가 사랑하는 그녀’, 유산(땅), 적, 숲, 사자, 매, 들짐승, 목자들, 포도밭, 뭇(‘헬카[הלקה]’, 땅), 황무지, 약탈자들, 언덕, 광야, 땅(‘에레츠[ארץ]’), 밀, 가시
- 산문에 담긴 야웨의 말씀(12:14-17) - 땅, 유다 백성, 이방 백성

예레미야는 12장을 시작하며 어떤 ‘악인들’과 ‘속이는 자들’을 언급하며

---

15) J. D. Hays, *Jeremiah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6), 81.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따로 끌어내 두시라고 주님께 요청한다(12:1-4). 12:1-6은 내용상 11장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부분(12:1-6)을 예레미야의 ‘고백’(렘 11:18-23; 12:1-6; 15:10-21; 17:14-18; 18:18-23; 20:7-13) 중 하나로 여긴다.<sup>16)</sup> 윌리엄 할러데이(William L. Holladay)와 존 브라이트(John Bright)와 같은 이전 세대 학자들은 현 위치보다는 11:18 앞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동시켜 다룬 바 있다.<sup>17)</sup> 그러나 잭 런드밤(Jack R. Lundbom)처럼 문학적 관심을 가진 후대의 학자들은 1-6절이 나머지 부분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다.<sup>18)</sup> 예레미야의 대사(1-6절)에서 땅이 우는 것이 야웨의 대사(7-17절)에서 땅이 우는 것과 어울려 두 부분을 연결하기 때문이다.<sup>19)</sup> 캐슬린 오코너(Kathleen M. O'Connor)에 의하면, ‘고백’ 부분은, 예레미야서의 지배적인 수사학이 나라의 멸망을 두고 백성을 탓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 저항과 생존을 상징한다.<sup>20)</sup>

5-6절을 누가 말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을 따라 1-4절은 예레미야의 말, 5-6절은 야웨의 대답이라고 본다.<sup>21)</sup> 야웨는 앞 11장 끝에서는 예레미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답하셨지만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다잡는 내용이다. “네가 보병과 달려서 지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고 하신다. 야웨는 다시 대구법으로 평지의 평안과 요

16) A. R. Diamond,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Scenes of Prophetic Drama*, JSOTS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149-188; K. M. O'Connor, *The Confessions of Jeremiah: Their Interpretation and Role in Chapters 1-25*, SBLDS 94 (Atlanta: Scholars Press, 1988), 97-113.

17) J. 브라이트, 『예레미야』, 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2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221-227, 229; W. L. Holladay, *Jeremiah I: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1986), 365.

18) 또한 런드밤은 1-6절에서 예레미야가 제기한 신정론적 질문(왜 악인들이 행동하나요?)에 대한 야웨의 대답이 7-13절이라서 두 부분이 연결된다고 본다. 악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황폐를 겪는다는 것이 대답이다. J. R. Lundbom, *Jeremiah 1-20*,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659. 페이지 켈리(Page Kelly, 12장의 저자)에 의하면, 야웨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애가로 답하고, 악이 인간에게도, 신에게도 슬픔을 유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P.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장』, 권대영 역, World Biblical Commentary 26 (서울: 솔로몬, 2003), 346.

19) J. R. Lundbom, *Jeremiah 1-20*, 657.

20) K. M. O'Connor, *Jeremiah: Pain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81-91; 루이스 스틸먼도 예레미야의 ‘고백’ 부분이 예레미야서 속 여러 목소리 중 하나로서 우주의 도덕 질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에 신실하신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다고 본다. L. Stulman, “Reflections on Writing/Reading War and Hegemony in Jeremiah and in Contemporary U.S. Foreign Policy”, C. M. Maier and C. J. Sharp, eds., *Prophecy and Power: Jeremiah in Femi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77 (London: Bloomsbury, 2013), 66-67.

21) NRSV, NKJ, ESV, 『성경전서 새번역』도 그렇게 보고 ‘주님의 대답’과 같은 소제목을 단다.

단의 높은 물결을 대조하며 지금까지는 평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sup>22)</sup> 즉 앞으로 시련이 더 많을 거라고 한다.<sup>23)</sup> 그러면서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배신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한다(12:5-6).<sup>24)</sup>

12장의 나머지 부분(7-17절)은 야웨의 대사이다. 야웨는 황폐 상황에 대해 먼저 시 형식으로 유다와 땅에 대한 애증의 감정, 심판, 폭력을 표현하고(12:7-13), 그 다음에 산문 형식으로 회개에 따른 자비와 희망을 약속한다.<sup>25)</sup> 그런데 놀랍게도 바빌로니아와 이웃 나라들의 구원 가능성까지 들어 있다(12:15-16).

야웨는 시 부분에서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유산[‘나할라[נַחֲלָה]’, 기업, heritage]을 포기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문자적으로, ‘내 영혼의 사랑하는 것’, ‘예디두트 나프쉬[עֵדִידוּת נַפְשִׁי]’)를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주었다”(7절). 런던밤은 ‘내 집’, ‘내 유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가 성전, 땅,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한 단어가 백성과 땅 등 두 가지 뜻을 중첩하여 뜻하고, 세 단어가 누적되어 총체성을 나타낸다고 본다.<sup>26)</sup> 학자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가 백성을 가리키고, 야웨의 아내로 의인화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11:15 참조).<sup>27)</sup> 그러나 필자는 야웨의 시적 말씀에 ‘유다’ 또는 ‘백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지구/땅 및 지구구성원들만 등장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집’, ‘유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 - 이 세 가지는 모두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물론 유다와 백성은 야웨의 특별

22) 문자적으로 요단강의 ‘높음에서(‘비그온[בִּגְוֵן]’)’인데 NRSV와 박동현은 ‘in the thickets (수풀)’로 번역했다. 박동현, 『예레미야 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459. 『성경전서 새번역』은 “창일한 물 속에서”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물이 넘칠 때에는”으로 번역했다.

23) R. 클레멘츠, 『예레미야』,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34.

24) 클레멘츠는 친지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한 이유가 바빌로니아의 명예를 때라는 예언자의 권고가 너무 강해서 살에게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는 왕의 정책과 반대되고 비애국적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R. 클레멘츠, 『예레미야』, 134-135.

25) 야웨의 말씀(12:7-14)을 시 부분(7-13절)과 산문 부분(14-17절)으로 나눈 예로는 다음과 같다. R. 클레멘츠, 『예레미야』, 137; J. R. Lundbom, *Jeremiah 1-20*, 650-651, 660; A. Bauer, *Gender in the Book of Jeremiah: A Feminist-Literary Reading*, SBL 5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9), 100.

26) J. R. Lundbom, *Jeremiah 1-20*, 653-654.

27) 예를 들면, F. B. Huey, Jr., *Jeremiah, Lamentation*, New American Commentary 16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3), 141; J. R. Lundbom, *Jeremiah 1-20*, 654.

28) 예레미야에서 유산[‘나할라[נַחֲלָה]’, 기업]은 종종 약속의 땅을 뜻한다(2:7; 3:19; 12:14). 왕하 21:14에서 유산은 계약 백성을 뜻한다. ‘집’은 백성, 땅 또는 둘 다를 뜻할 수 있다. J. R. Lundbom, *Jeremiah 1-20*, 652.



한 땅과 불가분리하게 포함된 일부이다. 하벨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신, 백성, 땅의 밀접한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관찰한 바 있다.<sup>29)</sup> 땅은 이스라엘의 유산(‘나할라[נַחֲלָה]’, 기업)이자(17:4) 야웨의 유산이다(2:7). 야웨의 백성 이스라엘은 야웨의 유산이고, 야웨는 이스라엘의 몫(10:16)이다. 그래서 야웨, 이스라엘, 가나안은 운명적으로 하나님-백성-땅의 공생(symbiosis) 관계에 있다. 이 삼각관계의 고리가 하나라도 풀리면 각 존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12장에서 야웨의 시적 말솜은 야웨와 땅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 상황과 메시지를 서술한다.

야웨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를 바빌로니아와 그에 가담한 이웃나라들에게 준다(‘나탄[נָתַן]’, 7절). 다음 절에서 숲의 사자(남성 명사)처럼 된 그녀는(‘하에타[הֵיטָה]’), ‘그녀의 목소리를 주님께 준다(‘나탄[נָתַן]’), 즉 반항하고 배교한다(8절). 야웨는 계속해서 다양한 비-인간 지구구성원을 ‘내 유산(소유, 기업)’으로 거명한다. 그들은 매(9절), 포도밭(10절), 몫(‘헬카[הֶלְקָה]’, 땅, 10절), 황무지(9-12절)이다. 우리의 생태비평에서 볼 때 이들은 유다 백성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전치사 ‘~처럼’이 붙어 있지 않다. 이들은 그냥 야웨의 유산이다. 야웨는 분노하여 이들이 차례로 다양한 동물(매들, 들짐승, 약탈자들)에게 잡아먹히고,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게 한다. 인간 지구구성원은 주로 부정적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다. 이들은 ‘적들’(7절), ‘목자들’(10절)과 ‘약탈자들’(12절)이다. ‘목자들’은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왕들(10:21; 23:1-2)이나 이방 침략자들(6:3; 25:34-36)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방 침략자들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sup>30)</sup>

12장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말은 9절의 ‘짜부아(צַבִּיט)’이다. 이 말은 성서에 한번 나오는 말(hapax legomenon)로서 BDB는 ‘색깔 있는, 얼룩덜룩한(colored, variegated)’으로 번역하고, LXX는 하이어나로 번역했다(= NRSV, ESV, HCSB).<sup>31)</sup> ‘아이트 짜부아(צַבִּיט צַיִט)’는 전통적으로 ‘얼룩덜룩한 맹금(a speckled bird of prey)’으로 번역되었다(= NIV, NLT[vultures]). 이 글은 BDB를 따라 육식 조류를 뜻하는 ‘아이트(צַיִט)’가 본문에서 집합명사로 단수와 복수 둘 다를 나타내고, 단수로는 야웨의 소유인 매이고, 복수로

29) N. C. 하벨, 『땅의 신학: 땅의 신학 땅에 관한 여섯 가지 이념』, 정진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00.

30) R. 클레멘츠, 『예레미야』, 139; J. R. Lundbom, *Jeremiah 1-20*, 657; F. B. Huey, Jr., *Jeremiah, Lamentation*, 140; 학자들은 이 부분의 역사 배경으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반역하고, 바빌로니아, 시리아, 압몬, 모압이 유다를 공격한 일(왕하 24:1-2; 렘 35:11 참조; 기원전 598년경)을 든다. P.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장』, 343-344; J. R. Lundbom, *Jeremiah 1-20*, 659.

31) BDB, 840. 칠십인역은 두 번의 ‘아이트(צַיִט)’를 모두 ‘둥굴(스펠라이온)’로 번역했다.

는 이 때를 공격하는 매들이라고 본다.<sup>32)</sup> 9절에는 ‘하아이트(הַעֵיט)’(매) … ‘하아이트(הַעֵיט)’(매들) … ‘하야트(חַיֵּה)’(짐승들) … ‘헤타유(הֵתַיִן)’(데려오다) 등의 단어가 어우러져 소리의 어희가 있다.

야웨는 계속해서 목자들과 약탈자들이 ‘내 포도밭’, ‘내 뭇’을 짓밟거나 마른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고 비통해한다(12:10, 12). 결국 ‘야웨의 칼’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휩쓸어서 “모든 육체(‘콜 바싸르[כָּל בָּשָׂר]’)에게 ‘살롬(שָׁלוֹם)’이 없다”(12:12). 일부 학자들은 ‘모든 육체’가 사람만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동물도 포함한다고 본다.<sup>33)</sup> 이제 땅은 처참한 황무지가 되어 밀을 심어도 가시만 나오고, 아무리 수고해도 수확이 없다(12:13).

야웨의 산문 말씀(14-17절)은 자료의 저자성과 연대가 예레미야와 그 시대가 아니고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라고 가장 의심받은 부분이다.<sup>34)</sup> 앞에서 시로 된 야웨의 말씀과 형식이 다르고, 내용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땅을 회복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심판, 포로, 회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 학자들은 야웨의 시와 산문 말씀이 공유하는 문학적, 언어적 연속성을 더 강조하고 이 자료가 예레미야 시대에 속한다고 본다.<sup>35)</sup> 즉, 예레미야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표현들이 14-17절에도 나오기에 통일성이 있다. 뽑고 세운다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도 여러 번 나오지만(1:10; 18:7, 9; 24:6; 31:28; 45:4), 특히 ‘유산’(2:7; 3:19 등)이 바로 위 단락(12:7-9)에 나온다(3회).<sup>36)</sup> 또한 예레미야의 다른 부분에도 유다의 회복(24:6; 29:10, 14; 30-33장; 50:19)과 이방 나라들의 포로와 회복(46:26; 48:47; 49:6, 39)이라는 주제가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웨의 시적인 말씀(7-13절)에서 우리의 생태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야웨가 애증을 표현하는 대상이 유산, 새, 땅, 뭇, 포도밭, 황무지 등 비-인간 지구구성원으로만 나오고 인간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7절의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문법적으로 여성형이지만 사람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문에 담긴 야웨의 말씀(14-17절)에서는 ‘내 백성’이 4회, ‘이스라엘’이 1회, ‘사람’(‘이쉬[אִישׁ]’)이 2회 나와서 자연보다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지배적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12장의 두 부분, 즉 예레미야의 ‘고백’과 야웨의 시 및 산문

32) BDB, 743.

33) 예를 들어, 박동현은 ‘모든 육체’가 사람만 포함한다고 본다. 박동현, 『예레미야 I』, 465.

34) W.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73), 162-168; P.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장』, 343에서 재인용.

35) 할러테이는 12:14-17의 연대를 시드기야 통치 초기로 잡는다. W. L. Holladay, *Jeremiah 1*, 391. 런던밤은 할러테이를 따라 시드기야 시대로 본다. J. R. Lundbom, *Jeremiah 1-20*, 662,

36) P. 크레이기 외, 『예레미야 1-25장』, 343; J. R. Lundbom, *Jeremiah 1-20*, 660.

말씀은 서로 생태 주제로 연결된다. 땅이 우는 것과 야웨의 유산, 즉 땅에 대한 강조가 12장에 통일성을 준다. 이제 예레미야 12장을 생태비평의 세 초점에 맞추어 해석하도록 한다.

### 3.2. 생태비평 초점 1: 의심(Suspicion)

생태비평의 첫째 초점인 ‘의심’ 부분에서는 성서의 화자(narrator), 등장 인물, 해석자와 독자들이 지구구성원을 도구화 및 대상화하거나 무시하는지, 즉 인간중심적으로 본문을 쓰고 해석하는지 의심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sup>37)</sup> 화자는 예레미야 12장 속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을 순전히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대상화하는가? 화자는 주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을 그저 ‘사용’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가? 해석자들은 이들 구성원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성서 화자나 해석자들은 지구를 수동적인 희생자로 재현하는가? 지구가 인간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정당하거나 자연스럽게 여기는가?

먼저 성서 화자의 관심사는 전반적으로 인간중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레미야와 야웨의 대사 속에 등장하는 지구구성원들은 주체적 인물이 라기보다는 본문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도구들로 보인다. 화자는 예레미야의 ‘고백’ 부분에서 주님이 악인들과 배신자들을 나무 심듯 심으셨다고 할 때 나무를 등장시킨다. 이 배신자들의 성공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되고, 이들의 파멸 요청은 도살하려고 따로 구별해두는 양에 빗대어진다(12:3). 화자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은, 악인들이 말로만 주님과 가깝고 속은 먼 자들이는데 어째서 그들이 잘 나가는지 묻는(12:1-2) 신정론이지, 나무가 아닌 것이다. 또 중심이 되는 것은 악인들이 겪을 파멸을 묘사하는 것이지 양이 아닌 것이다. 저자가 이들 지구구성원을 친족이라고 여겼다면 좀 더 민감성을 가지고 다른 비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악인들을 비-인간 구성원에 빗대기보다는 다른 악한 인간들의 선례에 빗대어 저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화자의 묘사 속 예레미야는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의 고통에 큰 관심을 갖고서 인간의 죄가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이 땅(‘에레츠 [ארץ]’)이 언제까지 슬퍼하며(‘아발[אבל]’), 들의 모든 풀이 말라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라아[רעה]’) 때문에, 짐승과 새도 사라집니

37) 하벨의 질문들을 변용하고 추가하였다. 참조,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52-53.

다”(12:4). 테렌스 프레다임(Terence Fretheim)은 예레미야의 이 말이 12장 해석의 핵심이고 절정이라고 본다.<sup>38)</sup> 이와 달리 필자는 땅이 주님을 보고 울고, 주님이 그에 영향 받아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12:11)이 절정이라고 생각한다(아래 ‘회복’ 참조). 예레미야의 말처럼 인간의 죄로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주제는 창세기(창 3:17-18; 4:12; 6:11-13) 및 다른 예언서에도 종종 나온다(겔 15:3, 7 등). 반대로 인간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면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이 회복된다는 생각도 나온다(레 26:3-4; 시 104:30 참조). 분명 예레미야는 현재의 가뭄 상황 또는 압박한 전쟁으로 인한 지구구성원들의 고통에 대해 슬픔과 속상함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야웨의 시적 말씀을 살펴보면, 지구구성원들은 많이 등장하지만 배교한 백성을 벌한다는 메시지를 위해 문학적 도구로 사용되고 대상화되는 듯하다. 야웨는 한 지구구성원 무리(백성)를 벌하기 위해 다른 무리(매들, 들짐승들, 목자들, 약탈자들)를 불러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분, 피조물들을 서로 싸움붙이는 분으로 묘사된다. 또한 땅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칼로 휩쓰는 존재로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가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자 폭력으로 통제하려는 남편이나 애인으로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은 성서 화자가 전하려는 인간중심의 신학적 메시지 속에서 대체로 수동적인 도구와 희생자로 재현된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정당하거나 자연스럽다고 여겨 지지는 않는다. 예레미야가 사람의 악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들의 풀이 마르고 짐승과 새가 멸절된다고 지적하며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예레미야보다 지구의 안위를 더 염려한다는 관찰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이제 현대 해석자들이 예레미야 12장을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해석했는지 의심해 보도록 한다. 이것은 몇 가지 주석서를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해석자들은 성서 화자보다도 훨씬 더 지구구성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니얼 헤이스(J. Daniel Hays)가 12장의 ‘신학적 통찰’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인간중심적이고, 지구구성원들을 다루지 않는다. 8절을 설명하며 본문 속 사자를 언급하는 정도이다. 헤이스에게는 다른 신학적 논의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사랑과 동시에 미움이 가능한지와 같은 질문을 다룬다.<sup>39)</sup> 월터 브루그만(Walter

38) T. Fretheim, “The Earth Story in Jeremiah 12”,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arth Bible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7. 프레다임은 우는 땅에 대한 관심(12:4, 11)과 유산으로서의 땅에 대한 관심(12:7-9, 14-15)이 12장 전체에서 서로 맞물린 주제라고 관찰한다. Ibid., 98.

39) J. D. Hays, *Jeremiah and Lamentations*, 84.

Brueggemann)의 경우도 비슷하다. 브루그만은 예레미야와 야웨의 대화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과 야웨의 비애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집중한다. 브루그만은 예레미야가 신정론에 대해 여쭙었지만(12:1-3) 주님이 동문서답을 한 것(12:5-6), 시 부분(12:7-13)이 신학적 상상과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두 차원에서 임박한 미래 장면을 상연한다는 것, 그리고 산문 부분(12:14-17)에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열방을 계약관계로 들어오게 할 특이한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sup>40)</sup> 이러한 해석에는 지구구성원들이 주체로 낄 틈이 없다. 최근(2019년)에 나온 제임스 스미스(James E. Smith)의 주석도 인간중심적 주석 전통에 굳건히 서 있다.<sup>41)</sup> 이 주석은 한 짚씩 설명하는 전통적인 주석인데 본문 속 지구구성원들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고, 오히려 “요단강 주변에 사나운 야생동물들이 들끓는다”면서 5절 본문에 없는 설명까지 덧붙여 지구구성원들을 부정적으로 재현한다.<sup>42)</sup>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이 인간중심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주석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대 해석자들은 성서 본문에 지구구성원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는데도 그들을 마치 희미한 배경인양, 존재하지 않는 양 대한다. 해석자들은 성서 본문에서 친족 지구구성원들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2절, 사람들이자 나무), 도살되기 위해 따로 준비되고(3절, 양), 울고(4, 11절, 땅), 말라죽고 멸절되고(4절, 풀, 짐승, 새), 달리고(5절, 말), 일렁이고(5절, 강물), 으르렁거리고(8절, 사자),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새 또는 하이에나, 매들, 들짐승, 9절), 황무지로 거듭 변하고 우는데(10, 11, 13절, 땅), 이들의 삶과 죽음, 움직임, 아우성, 고통, 통곡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해석자들은 성서 해석의 역사동안, 특히 도시 중심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더욱 더 인간중심적으로 본문을 읽어왔다. 필자를 포함한 해석자들은 성서 화자가 지구구성원들을 재현한 방식보다도 그들을 훨씬 덜 주체적이고 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지구구성원으로 읽었다.

### 3.3. 생태비평 초점 2: 동일시(Identification)

생태비평은 지구구성원과 독자 자신의 동일시를 요구한다. 내가 사람의

40) W. Brueggemann,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118-126.

41) J. E. Smith, *Jeremiah, A Commentary* (Morrisville: Lulu.com, 2019).

42) *Ibid.*, 163.

악 때문에 죽게 된 식물과 동물이라면 어떨 것인가? 내가 땅이라면 어떨 것인가? 주님이 분노하셔서 나를 아낀다면(이방 나라들 및 주님의) 칼로 치고(전쟁과 폭력), 밭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게 하시는데(황무지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가 하면, 수확을 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휴식일까? 아니면 성서 화자가 전제하듯이, 소출이 없으니 ‘수치’이고(12:13) 비생산적일까?

독자가 본문 속 비-인간 지구구성원들을 친족으로 여기고 연대하고 공감하며 읽는 동일시 단계에는 시적 상상력과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고 매사를 인간중심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주제를 연구하는 동안 본문 속 지구 존재 및 지구 등장인물들을 경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동일시를 꾀해 보았다. 그러자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주님, 예레미야의 지인들, 목자들과 약탈자들 등 인간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은 덜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대신 본문 속 지구 및 지구 등장인물들의 존재, 목소리, 감정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그들이 겪는 일과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인간 등장인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잘 보였다.

필자는 본문에서 여러 지구 및 지구구성원 중에서도 땅과의 동일시를 가장 크게 경험한다. 땅은 12장을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다. 땅은 주님이 예레미야의 배신자들을 나무 심듯 심으실 때 거기 있었고, 예레미야가 들녘의 풀이 말라죽는 것을 보며 땅이 우는 것을 말할 때 거기 있었고, 주님이 땅과 요단강을 대조하실 때 거기 있었다. 땅은 주님의 유산, 뭇, 포도밭이다. 폭력성을 가진 사자이든, 밭 대신 나온 가시이든, 심지어 약탈자들이든 다 땅의 품에서 산다. 땅은 땅일 뿐 우리 땅(유산, 12:14), ‘그들의 땅’(‘아드마탐[אדמתם]’)이 따로 없다(아래 ‘회복’ 부분 참조). 땅이 생각할 때, 주님이 땅을 두고 ‘내가 아끼는 뭇’(12:10)이라고 하면서도 침략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의 벌이 부당하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가 주님께 대항하여 ‘그녀의 목소리를 높인’ 것처럼(12:8), 땅은 부당한 방식의 벌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필자는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땅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구구성원에게 목소리를 주는 시적인 상상력으로 생태 미드라쉬를 써본다.<sup>43)</sup> 그녀의

43) 지구구성원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은 인간 독자의 시적 상상력을 요하므로 필자는 생태 미드라쉬라고 불러보았다. 이는 주디스 플래스코가 미드라쉬 장르를 페미니스트 탐구에 이상적인 출구(outlet)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드라쉬는 결론이 열려 있고 진지하고 장난스럽고(playful) 상상적이고 은유적이어서 페미니스트 해석에 유용할 수 있다. 미드라쉬는 독자의 신념과 경험을 반영하여 상상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독자의 자의식은 현대이지만 성서가 독자의

목소리는 백성의 불복종 때문에 야웨께서 외세를 불러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성서 화자의 신학적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듯하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울어야 하며, 언제까지 제 품에서 사는 생명들이 죽어가야 하나요? 가축과 새와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저를 짓밟을 때 왜 보호해주지 않았나요? 그들이 마른 언덕을 넘어 몰려올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들을 부추겼나요? 왜 주님이 화를 내며 칼을 휘두르셨나요? 주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외국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도 원망스러워요.”

### 3.4. 생태비평 초점 3: 회복(Retrieval)

생태비평의 셋째 초점인 ‘회복’과 관련해 다룰 질문은 이러하다.<sup>44)</sup> 지구를 희생자로 구성하는 것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본문 속에 있는가? 지구는 인간을 위해 고통당할 운명인가? 아니면 이것은 공동의 고통 형태, 즉 지구가 인간과 공감하는 고통인가? 성서 화자가 지구구성원과 인간을 공동 운명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는가? 주님이 지구와 공감하는가?

예레미야와 야웨는 땅이 운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땅이 단순히 우는 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백’이 국가의 멸망에 대해 백성을 타타하는 주류 신학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듯이, 땅도 저항의 목소리를 낸다고 본다. 땅은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과 도구가 아니라, 역사의 주요 참여자이자 이해당사자로서 생각과 감정을 피력한다.

야웨의 말씀에서 “그녀가 나(주님)를 보고 통곡한다”는 말은 땅의 저항과 원망을 살려 다시 번역될 수 있다. ‘나를’로 번역된 ‘알라이(אֵלַי)’에서 전치사 알은 ‘~를 향해’도 맞지만, 8절에서 ‘내 유산’이 주님께 대항한(‘알[אֵלַי]’) 것처럼 ‘~에 대항하여’로 번역될 수 있다.<sup>45)</sup> 그렇다면 땅은 그저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주님께 대항하고 원망하며 우는 것이다. 어찌면 이것은 땅의 목소리와 성서 화자의 목소리가 합쳐지는 부분, 화자가 땅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화자도 입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배교한 백

현실에 말하게 한다는 면에서 랍비 전통에서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전달할 때 성서의 글자들 사이의 공간에서 나오는 여성의 말을 들을 수 있다.” J. Plaskow, *Standing Again at Sinai* (San Francisco: Harper & Row, 1990), 54.

44) 하벨의 질문들을 변용하고 추가하였다. 참조,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52-53.

45) BDB, 757.

성에 대한 주님의 별이라는 신화를 피력하지만, 속으로는 땅의 목소리처럼 그러한 별을 원망스럽게 여긴다.

사실은 결정적으로 주님도 땅과 백성에 대한 양가성과 애증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야웨는 “목자들이 ‘내가 아끼는(‘헴다티[חַמְדָּתִי]’) 뭍’을 황무지로 만들었다”(12:10)고 하신다. 땅은 ‘내 포도밭 … 내가 아끼는 뭍’이라서 목자들, 약탈자들이 와서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다. 땅에 대한 야웨의 강렬한 감정은 교차대구적 수사학에 담겨 있다.

A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쳤다. 내 땅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땅을 황무지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그녀를 황무지로 바꾸었다.

X 그녀가 나를 보고 통곡한다, 황무지가-된-채.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참으로(כִּי)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A' 약탈자들이 광야 모든 언덕을 넘어서 왔다.  
참으로(כִּי) 야웨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켰다.  
모든 육체에 평안이 없다. (12:10-12)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샤맘[שָׁמַם]’, desolate)’는 말은 네 번이나 반복되는 키워드이다(12:10, 11[3회]).<sup>46)</sup> 땅은 철저히 황폐하게 되었다. 가운데의 땅(X)은 앞과 뒤에서(A와 A’) 외부 및 주님의 공격에 에워싸여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야웨는 교차대구의 한 가운데서 외치신다.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데, 참으로(‘כי[כִּי]’)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12:11)고 하신다. 주님이 신경 쓰신다! 뜻밖에도 야웨는 황무지가 된 땅 때문에 몹시 애통해하는 심정을 들키신다. 야웨는 백성을 향한 분노와 별을 말하면서도 땅의 황폐화를 말할 때 억누를 길 없이 슬프다.<sup>47)</sup> 주님의 심정은 예레미야가 “이

46) ‘샤맘(שָׁמַם)’(황무지가 되다)은 ‘하타트(חָתַת)’(두려워 떨다)와 더불어 에이미 켈머누스키가 예레미야서를 공포(horror) 본문으로 해석할 때 사용하는 주요 동사이다. 그녀는 출산하는 여성의 고통 및 파괴를 보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라는 두 이미지를 이 동사를 중심으로 다룬다. A. Kalmanofsky, *Terror All Around: The Rhetoric of Horror in the Book of Jeremiah*,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0 (New York: T&T Clark, 2008).

47) 프레다임은 “하나님의 반복적, 개인적, 감정 가득한 말 속에서 땅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중간에 꺼져 사냥감이 된 땅의 모습을 표현한다. T. Fretheim, “The Earth Story in Jeremiah 12”, 107.



땅이 언제까지 슬퍼해야 합니까?”(12:4)라고 말할 때 땅과의 동일시를 암시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동일시 차원으로 표현된다. 야웨는 예레미야의 말과 비슷하면서도 감정의 깊이를 더한 말로 바꾸어 “그녀가 나를 보고 통곡한다, 황무지가 된 채!”라고 하신다(12:11).<sup>48)</sup>

프레다임은 땅이 하나님을 보며 우는 부분이 상호반응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과 땅의 독립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관찰한다(12:11).<sup>49)</sup> 그 또한 11절에서 생태비평의 ‘목소리의 원칙’, 즉, 지구구성원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발견한다. 그런데 프레다임은 땅과 동물들을 희생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은 소명이 있고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주장한다.<sup>50)</sup> 하나님은 세계를 폭력 수단으로 다루기로 선택했고, 땅을 다시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데는 종종 일련의 폭력 사건이 필요하고, 땅과 백성을 적에게 내어주는 고통은 새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sup>51)</sup> 그런데 이 해석은 지구구성원과의 ‘동일시’까지 나아간 생태비평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프레다임은 예레미야서가 묘사한 야웨를 옹호하려는 나머지 외세를 통한 심판과 폭력이 새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슬픔과 비통함을 폭력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보고, 땅과 동물이 겪는 고난을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소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대 독자의 감수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야웨의 시적 말씀에서 표현된 강한 감정 이입은 산문 말씀에서 이방 땅과 백성까지도 구원하는 전망으로 구체화된다(14-17절). 야웨의 산문 말씀은 유다의 ‘집’(백성)이 침략자인 이방 백성과 섞여 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야웨는 이방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유다 백성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뽑아내실 것이다. 그런데 초점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 있다. 야웨는 곧 ‘내가 돌이켜서(‘아슈브[אָשׁוּב]’)’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자의 유산,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15절). 주어는 계속 ‘그들’이고 문맥을 보아 그들은 이방 백성이다. 그들 또한 어딘가에서 이주하여 유다 백성과 섞여 살게 되었고 돌아갈 각자의 땅이 있음을 암시한다. 야웨의 자비는 그들에게 야웨의 백성이 될 기회도 주신다. 그들이 불복종하면 ‘뽑히고 파괴될’ 것이지만(17절), “내 백성의 길을 배우고, 내 이름으로, 야웨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

48)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자의 애도와 하나님의 애도는 종종 함께 짜여있다(12:1-4, 7-13; 13:15-17; 14:2-6, 17-18; 15:5-9; 18:13-17).

49) T. Fretheim, “The Earth Story in Jeremiah 12”, 99.

50) Ibid., 102.

51) Ibid., 108-109.

다”(16절). 프레다임이 관찰하듯이, 여기서 초점은 유다 땅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땅에 있고, 그래서 땅에 대한 야웨의 관심은 보편적이다.<sup>52)</sup> 이처럼 예레미야의 구원신탁은 이웃 민족들(3:17; 12:14-17; 29:7 참조)은 물론 땅 자체(31:5, 12, 14, 27; 32:43-44; 33:10-13; 50:19)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매우 포용적이고 생태적이다.

예레미야의 이 비전에서는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적 구분이 흐려진다. 야웨의 시적 대사에서 야웨가 배교하는 백성에 대해 걸으려는 분노를 표하지만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을 뜻밖에도 드러낸다면, 산문 대사에서 야웨는 이방 백성까지도 포용할 계획을 밝히신다. 야웨의 놀라운 관용은 땅의 입장과 조화를 이룬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편과 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아예 없다. 땅은 모두 이어져 있기에 우리 땅과 적의 땅이 따로 없다. 땅은 주님처럼 모두가 하나가 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 4. 결론

우리는 앞에서 지구성서 학자들의 생태비평을 예레미야서 12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읽기를 시도했다. 생태비평의 여섯 가지 원칙과 더불어 의심, 동일시, 회복이라는 세 가지 초점은 성서 본문을 인간중심적으로 읽어온 오랜 습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이 생태해석학을 통해 우리는 본문 속 지구 등장인물들을 친족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본문의 전면에서 두려고 하였다.

우리는 ‘의심’을 통해 성서 화자가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을 다양하게 등장시켰지만 인간중심적, 신학적 메시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였다. 또한 몇 가지 주석서의 예를 들어 그동안 해석자들이 얼마나 인간중심적이었나를 지적했다.

그리고 ‘동일시’에서는 특히 땅과의 동일시를 피하며 땅이 나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원망하고 통곡한다고 보았다. 또한 땅이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과 신학 메시지의 도구가 아니라, 역사의 주요 참여자요, 이해당사자임을 관찰했다. 여기서 필자는 땅에게 목소리를 주는 생태 미드라쉬 작업을 짧게 시도했다.

끝으로 ‘회복’에서는 땅의 통곡과 원망이 성서 화자의 속내를 대변하고 땅과 일체가 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저자가 임박한 외세의 침략을 유다

52) Ibid., 109.

백성의 배교로 인한 주님의 벌이라는 신학적 입장을 인간(예레미야)과 신의 말에 담았을지라도, 땅은 수사학의 틈새를 빠져나와 저자의 주장을 뛰어넘어 주체적인 등장인물로서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운명을 아우르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가 땅이 울고 식물이 마르고 새와 짐승이 멸절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지구 및 지구구성원들을 메시지의 도구로만 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특히 우리는 주님이 땅과 백성을 향해 갖는 애증으로 땅이 황무지가 되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애통해 하는 말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이 땅의 통곡을 경청하고, 땅에 깊이 신경 쓰는 모습을 관찰했다. 예레미야가 땅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나란히 두었다면(12:4), 주님에게 땅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 ‘내 기업’, ‘내 뭉’이었다. 야웨와 땅은 독자적 관계를 가진 사이로서 서로를 감정적으로 긴밀히 반사했는데, 그녀가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도 화가 났고(12:8), 그녀가 울 때 주님도 애통해했다(12:11). 야웨는 이방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냈지만 곧 마음을 돌이켜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기회와 야웨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어디든 연결되어 있는 땅은 내 편과 네 편, 유다 백성과 이방 백성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상징 역할을 했다.

전반적으로 예레미야 12장은 인간과 비-인간, 우리 편과 적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하나님, 인간 및 비-인간 등 모든 등장인물이 슬픔과 분노, 폭력과 자비, 불순종과 회개 등을 겪으며 결국 상처와 분리를 넘어 치유와 연합으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그간의 인간중심적 성서해석을 성찰하고, 본문 속에서 비-인간 지구구성원들을 주체 및 이해당사자로 여기고, 이 친족과 동일시하며 그들을 전면에 두고 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성서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 절박한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 지구구성원들이 비-인간 친족들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관점 변화와 실천에 기여한다면 더욱 감사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태해석학은 이전의 연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새로운 생태인식을 반영한 생태비평을 성서연구에 적용하고 실천과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제어>(Keywords)

예레미야 12장, 생태비평, 지구성서, 지구와 지구공동체, 동일시.

Jeremiah 12, ecocriticism, the Earth Bible, the earth and earth community, identification.

(투고 일자: 2021년 7월 25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Wheaton: Crossway Bibles, 2007.
- The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2004.
- The King James Version*, 1611.
-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73.
- Th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 The New Living Translation*, Carol Stream: Tyndale, 1996.
-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89.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53.
- 김도훈, “생태학적 성서해석의 시도”, 『장신논단』 19 (2003), 209-233.
- 류터, R. R., 『가이아와 하느님: 생태 여성학적 신학』, 전현식 역,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Ruether, R. R., *Gaia and God: An Ecofeminist Theology of Earth Healing*,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2.
- 박동현, 『예레미야 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브라이트, J., 『예레미야』, 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2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 장석정, “열 가지 재앙에 나타난 생명과 생태계”, 『Canon&Culture』 6:2 (2012), 79-108.
- 크레이기, 피터 외, 『예레미야 1-25장』, 권대영 역, World Biblical Commentary 26, 서울: 솔로몬, 2003.
- 클레멘츠, R., 『예레미야』,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Clements, R. E., *Jeremiah*,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하벨, N. C., 『땅의 신학: 땅의 신학 땅에 관한 여섯 가지 이념』, 정진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Habel, N. C.,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호렐, D. G., 『성서와 환경: 생태성서신학 입문』, 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4; Horrell, D. G., *The Bible and the Environment: Towards a Critical Ecological Biblical Theology*, Biblical Challenges in the Contemporary World, London: Routledge, 2014.
- 고선호, “플라스틱, 미래를 폼다”, 『이뉴스투데이』, 2021. 4. 5. <https://www.>

- 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775 (2021. 8. 1.).
- 송경은, “韓 1인 탄소배출량 세계 4위...”, 『매일경제』, 2019. 9. 23.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9/757523/> (2021. 8. 1.).
- Bauer, A., *Gender in the Book of Jeremiah: A Feminist-Literary Reading*, SBL 5,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9.
- Brueggemann, W.,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 Diamond, A. R.,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Scenes of Prophetic Drama*, JSOTSS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 Eaton, H., “Ecofeminist Contributions to an Ecojustice Hermeneutics”,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arth Bible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54-71.
- Fretheim, T., “The Earth Story in Jeremiah 12”,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arth Bible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6-110.
- Habel, N. C., “Ecological Criticism”, S. L. McKenzie and J. Kaltner, eds., *New Meanings for Ancient Texts: Recent Approaches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39-58.
- Habel, N. C.,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Earth Bible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Habel, N. C., ed., *The Birth, the Curse and the Greening of Earth: An Ecological Reading of Genesis 1-11*, Earth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Habel, N. C. and Wurst, S., eds., *The Earth Story in Genesis*, Earth Bible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Habel, N. C. and Wurst, S., eds., *The Earth Story in Wisdom Traditions*, The Earth Bible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Hays, J. D., *Jeremiah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6.
- Holladay, W. L.,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1986.
- Horrell, D. G.,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0.
- Huey, F. B., Jr., *Jeremiah, Lamentation*, New American Commentary 16,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3.

- Kalmanofsky, A., *Terror All Around: The Rhetoric of Horror in the Book of Jeremiah*,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0, New York: T&T Clark, 2008.
- Lundbom, J. R., *Jeremiah 1-20*,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9.
- O'Connor, K. M., *Jeremiah: Pain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O'Connor, K. M., *The Confessions of Jeremiah: Their Interpretation and Role in Chapters 1-25*, SBLDS 94,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Plaskow, J., *Standing Again at Sinai*, San Francisco: Harper & Row, 1990.
- Smith, J. E., *Jeremiah, A Commentary*, Morrisville: Lulu.com, 2019.
- Stulman, L., "Reflections on Writing/Reading War and Hegemony in Jeremiah and in Contemporary U.S. Foreign Policy", C. M. Maier and C. J. Sharp, eds., *Prophecy and Power: Jeremiah in Femi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77, London: Bloomsbury, 2013, 57-71.
- Centre for Biblical Studies, "Uses of the Bible in Environmental Ethics", <http://humanities.exeter.ac.uk/theology/research/centres/biblicalstudies/past/uses/> (2021. 8. 1.).

<Abstract>

**“She Mourns”:  
An Ecocritical Reading of Jeremiah 12**

Yani Yo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Jeremiah 12 focusing on three foci (suspicion, identification, retrieval) developed by the Earth Project team. Before dealing with the three foci, this paper observes some impressive ecocritical points in the text. Scholars tend to think that “the one I truly love” (12:7) refers to the Judahites and personifies them as Yahweh’s wife. But in Yahweh’s poetic speech (12:7-13), it is noted that neither the word Judah nor people appear but only earth and its components. All three words, “house”, “heritage”, and “the one I truly love” can be seen as referring to the land. More earth components such as ‘portion’, ‘bird of prey’, and ‘vineyard’ appear in the rest of Yahweh’s poetic speech. Humans are de-centered.

First, in the suspicion section, it can be judged that the interests of the biblical narrator are generally anthropocentric. Earth and its components are represented as passive tools in human-centered theological messages. However, this situation is neither justified nor considered natural. Jeremiah is very concerned about the suffering of earth and its components, and judges human sin as the cause (12:4). The paper also demonstrates that commentaries and interpretations have been anthropocentric. Interpreters including myself have seen earth components as much less subjective and less of their own voice than the ways they are represented by the biblical narrator.

Second, in the identification section, it is observed that the desolate land has her own thoughts and emotions, and so she mourns and blames Yahweh. All including the wicked, lion, thorns, and foreign peoples are inhabitants of the land, so she mourns over the sad reality affecting all creation. I identified most with the land among many non-human characters, so through eco-midrash, I tried to give a voice to the land.

Third, in the section of retrieval, it is observed that the land’s mourning reveals the narrator’s inner thoughts. Although the narrator says through his lips



that the foreign invasion is punishment from God for people's disobedience, he resents such punishment in his heart. The climax of retrieval is found in Yahweh's intense love and hate toward the land, especially when she mourns and blames the deity (12:11). Just as Jeremiah's confessions voice resistance to mainstream theology, blaming the people for the collapse of the state, so the earth voices resistance to Yahweh. When Yahweh complains that no one cares about the desolate land, the deity unwittingly discloses that he responds to the mourning land and cares about her! Yahweh's love and hate extend even to foreign peoples. They are given a chance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nd the possibility to become his people. The land like Yahweh provide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will become one, overcoming dichotomy between friends and foes, and the Judahites and the foreigners.